



시즌 2승을 눈앞에 뒀던 김효주가 18일 미국 오하이오 주 하이랜드 메도우스 골프장에서 열린 LPGA 투어 마라톤클래식에서 사흘 동안 유지한 선두를 지키지 못하고 아쉽게 4위로 경기를 마쳤다. 지난 5월 열린 볼빅 챔피언십에서 티샷 후 공을 바라보고 있는 김효주. AP뉴시스

실땀 연구 | LPGA 마라톤 클래식 사흘내내 선두서 최종 4위로

김효주, 그녀에게 무슨 일이...

드라이브 난조...아이언샷 적응을 | 한연희 감독 "크게 걱정할것은 없어" 최근 "간만에 우승 눈앞...긴장했다"

김효주(21·롯데)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라톤 클래식(총상금 150만 달러)에서 사흘 동안 유지해온 선두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아쉽게 4위에 그쳤다.

김효주는 18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니아의 하이랜드 메도우스 골프장(파71)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는 2개에 그치고 보기 4개를 쏟아내며 2오버파 73타를 쳤다. 2타 차 선두로 최종라운드를 맞았던 김효주는 합계 13언더파 271타로 경기를 마치며 1위 자리를 내주고 4위에 만족했다.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이미림(25·NH투자증권), 아리아 쉐타누간(태국·이상 14언더파 270타)과 연장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 첫날 생일을 맞았던 김효주는 모처럼 좋은 경기를 펼치며 우승 기회를

잡았다. 1라운드에서 5타를 줄이며 선두로 나섰고, 2라운드에서도 3언더파를 기록하며 우승 경쟁에서 밀리지 않았다. 3라운드에서는 절정을 보였다. 퍼트와 아이언 샷이 절정을 보이며 이날만 무려 7타를 줄였다. 특히 리디아 고와 같은 조에서 경기를 펼쳤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 '역시 김효주'라는 평가를 들었다. 사흘 동안 큰 실수가 없었기에 우승까지 내다봤다. 그러나 최종라운드를 맞은 김효주는 엇박자를 보였다. 드라이브 샷이 난조를 보였고, 빈틈이 없어보였던 아이언 샷과 퍼트도 날카로움을 잃었다. 1~3라운드 동안 27-29-27개로 정교함을 보여준 퍼트는 이날 32개까지 치솟았다. 80% 이상이던 아이언 샷의 그린적중률은 66%까지 떨어졌다.

마지막 날 경기만으로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2013년 프로 데뷔 이후 늘 정상권에 있었던 김효주에게 우승을 놓친 아쉬움은 크다. 또한 올 시즌 개막전이었던 바하마클래식 우승 이후 부진한 성적을 거뒀었던 만큼 2승에 대

한 기대감도 높았다. 다행히 부진이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측근들의 설명이다. 지난달 미국에서 김효주의 경기를 지켜본 뒤 스윙을 재점검하고 돌아온 한연희 감독은 "스윙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게 없다.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걱정하지 않았다. 김효주의 또 다른 측근 역시 "단지 오늘은 오랜만에 우승을 눈앞에 두면서 경기를 오히려 풀이하지 못한 것 같다. 점점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장 끝에 우승을 차지한 리디아고는 시즌 4승째를 따내며 다승 선두로 나섰다. 6월 아칸소 챔피언십에 이어 한 달여 만에 다시 우승에 성공한 리디아고는 올림피크를 앞두고 한국선수들과 금메달을 놓고 경쟁할 가장 위협적인 존재임을 재확인시켰다.

리디아고는 "내가 온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다. 2년 전 우승했던 대회에서 다시 우승하게 돼 더 기쁘다"라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아프니까 청춘...기대주 김시우, 연장패배에서 얻은 것

PGA 바바솔 챔피언십 아쉽게 준우승 가족들 "온갖 시련 딛고 선 무대 대견"

한국 남자골프의 기대주 김시우(21·CJ 대한통운·사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바바솔 챔피언십(총상금 350만 달러)에서 연장 접전 끝에 아쉽게 준우승했다. 김시우는 18일(한국시간) 미국 앨라배마 주 오번의 RTJ 트레일 그랜드 내셔널 골프장(파71)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7개, 이글 1개를 적어내며 8언더파 63타를 쳤다. 최종합계 18언더파 266타를 기록한 김시우는 애런 배틀리(호주)와 동타를 이뤘던 연장전에 돌입했다. 앞서 이를 동안 완벽에 가까운 경기를 펼쳤던 김시우는 이날도 17번홀까지 보기 없는 경기를 펼치며 무려 9타를 줄였다. 아쉽게 마지막 18번홀(파4)에서 보기를 적어내 연장전을 허용했다.

연장전 상대는 호주의 골프신동으로 불린 애런 배틀리. 2011년 우승 이후 5년 동안 무관에 그치고 있다. 연장전은 팽팽했다. 18번(파4)과 17번홀(파3)에서 치러진 세 번째 연장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모두 파를 기록했다. 우승이 가려진 건 연장 네 번째 홀. 김시우의 두 번째 샷이 그린 오른쪽으로 떨어지면서 위기를 맞았다. 세 번째 샷으로 그린에 올랐지만, 배틀리가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우승했다.

우승을 놓치기는 했지만 김시우의 성장에 더 큰 기대를 갖게 만든 경기였다. 김시우는 일찍부터 예비스타로 주목받은 기대주다. 고교 1학년 때 태극마크를 달았고, 아마추어 시절 프로 대회에 나가 우승을 다룰 정도로 뛰어난 성적을 올리기도 했다. 고교 2학년이던 2012년



에는 태극마크를 반납하고 PGA 투어의 마지막 퀴리파 인스쿨(이하 Q스쿨)에 도전했다. 그리고 최연소(17세 5개월6일) 통과는 물론 우승을 일으켰다. 기대가 컸지만, 프로생활의 시작은 순탄하지 못했다. 만 18세 이상부터 출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발목이 잡혀 겨우 8개 대회 밖에 출전하지 못했다. 결국 그해 시즌을 앞두고 웨트컴(2부) 투어에서 바닥을 다졌다. 2년 동안 갖은 고생을 다하며 PGA 재입성을 노린 김시우는 마침내 지난해 7월 웨트컴 투어 스톤브레 클래식에서 프로 데뷔 첫 우승을 차지하며 두 번째 꽃을 피웠다. 3년 만에 PGA에 데뷔했을 당시만 해도 8개 대회에서 모두 컷 탈락했다. 그러나 올해는 소니오픈 4위, 커리어빌더 챔피언십 공동 9위 그리고 이번 대회 준우승까지 세 차례 톱10에 진입하면서 완벽하게 적응했다. 준우승을 기록한 김시우는 시즌 페덱스랭킹 67위에서 45위, 세계랭킹은 150위에서 118위까지 상승했다. 다음 대회가 열리는 캐나다 토론토로 이동하며 경기를 지켜본 가족들은 "우승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준우승도 아주 잡았다. 이제 겨우 스물한 살에 불과하니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 같다. 온갖 시련을 견뎌내고 PGA 투어에서 정상급 스타들과 경쟁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아쉬움을 털어냈다. 주영로 기자

뛰는 미켈슨 위에 '나는 스텐손'...디오펜 첫 우승

상금 17억 책파...20언더 264타 최저타 기록도

헨릭 스텐손(스웨덴·사진)이 제145회 디오픈(총상금 930만 달러)에서 데뷔 첫 메이저대회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뛰는' 필 미켈슨(미국) 위에 '나는' 헨릭 스텐손(스웨덴)이었다. 18일(한국시간) 스코틀랜드 에이스의 로열 트론 골프장(파71)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는 40대 두 베테랑의 뜨거운 우승경쟁으로 관심이 높았다. 3라운드까지 스텐손이 1타 차 선두를 달렸고, 미켈슨은 맹추격했다. 경기 초반부터 이미 우승은 스텐손과 미켈슨의 대결로 압축됐다. 9위와 10타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경기는 둘의 매치플레이처럼 흘러갔다. 13번홀까지 승부를 예상하기 힘들었다. 스텐손이 버디를 잡아내면, 미켈슨이 곧바로 추격했다. 스텐손은 정교한 아이언 샷으로 미켈슨을 압박했고, 미켈슨은 마법같은 쇼트게임을 앞세워 방어했다.

메이저대회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 온 스텐손의 악몽이 재현되는 듯했다. 스텐손은 역대 메이저대회에서 7번이나 우승 문턱에 다가섰다. 2008년 디오픈 공동 3위를 시작으로, 마스터스를 제외하고 US오픈과 PGA 챔피언십에서 모두 5위 이내의 성적을 거뒀다. 2013년 디오픈에서는 미켈슨에게 뼈아픈 역전패를 당한 적도 있다. 승부의 추가 기울어진 건 14번홀(파3)이다. 8m가 넘는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달아난 스텐손은 이후 15번



과 16번홀까지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승기를 잡았다. 미켈슨도 16번홀(파5)에서 버디를 기록했지만 이미 추격에서 멀어진 스텐손은 멈추지 않고 우승까지 내달렸다. 미켈슨은 이날 보기 없이 이글 1개와 버디 4개를 뽑아내는 완벽한 경기를 펼쳤다. 그러나 보기를 2개로 막아내고 버디를 무려 10개나 뽑아낸 스텐손을 잡지는 못했다. 20언더파 264타를 적어낸 스텐손은 미켈슨(17언더파 267타)을 3타 차로 따돌리고 데뷔 후 첫 메이저대회 우승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4라운드 합계 20언더파 264타는 1997년 그렉 노먼(호주)이 세운 디오픈 최저타(267타)를 3타 경신한 기록이다. 언더파 기준으로는 2000년 타이거 우즈(19언더파)에 1타 앞선 신기록이다.

2013년 페덱스컵 우승으로 1000만 달러 보너스 상금을 거머쥔 스텐손은 메이저대회에서 처음 우승한 스웨덴 선수가 됐다. 세계랭킹은 5위까지 끌어올렸다. 우승상금은 무려 154만9590달러(약 17억6000만원)이다. 미켈슨보다 11타 뒤진 J.B 홀스가 3위(6언더파 278타)에 올랐고, 로리 매킬로이는 5위(4언더파 280타)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한국선수 중에선 김경태(30)가 공동 53위(7오버파 291타)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주영로 기자

외국인선수 드래프트...KBL '눈치코치 대전쟁'

최용석의 팀인

KBL은 남자프로농구 2015~2016시즌부터 외국인선수 2명의 신장을 차별화했다. 한 명은 반드시 193cm 이하로 선발하도록 했다. 다수의 팀이 골밑 수비가 가능한 이른바 '인더사이즈 빅맨'을 선호했다. 그러나 가드와 포워드 등 기술이 좋은 단신 외국인선수를 뽑는 오리온과 KCC가 각각 챔피언 결정전과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오리온 가드 조 잭슨과 KCC 가드 안드레 에잇은 화려한 플레이로 농구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2016~2017시즌 준비에 한창인 KBL은 현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2016 외국인선수 트레이딩아웃과 드래프트를 진행하고 있다. 18일(한국시간) 신장 측정과 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 102명(단신 42명·장신 60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KBL은 현재 미국프로농구(NBA) 서머리그 일정 때문에 트레이딩아웃 첫날 행사에 참가하지 못한 2명과 등록 절차에 문제가 있어 보류된 2명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 뒤 추가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19일과 20일 트레이딩아웃, 21일 오전 2시30분 드래프트가 실시된다. 새 시즌 준비과정에서 외국인선수 선발이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10개 구단 코칭스태프와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선수의 기량 점검 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외국인선수 드래프트 현장에서 많은 해프닝이 벌어진다. 신장이 애매한 선수들은 기준점을 맞추기 위해 신장 측정 때 갖은 노력을 다한다. 일부러 구부정하게 서거나 무릎을 제대로 펴지 않는 선수가 등장하기도 한다. 트레이딩아웃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일부 선수는 의혹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좋은 선수를 뽑기 위해 특정팀이 선수를 숨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폼수가 들롱 나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팀이 나온 경우도 있었다. 선수들도 그렇지만, 각 팀 관계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운다. 사전 점검한 선수들 외에 팬층은 자원이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한다. 드래프트에 선발되기도 계약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봐야만 시즌 농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선수 선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사막 위에 지어진 도시 라스베이거스. 한 낮 기온이 섭씨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열사의 땅에서 좋은 선수를 뽑기 위한 10개 구단의 치열한 경쟁이 더욱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gtvong@donga.com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평창마스코트 '수호랑' '반다비' 첫 인사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18일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의 전국 투어를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올림픽 붐 조성에 돌입했다. 조직위는 이희범 조직위원장과 배진환 강원도 행정부지사, 심재국 평창군수, 윤성보 정선부군수, 황계초 전교생, 지역주민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 황계초등학교에서 마스코트 홍보 캠페인 '수호랑 반다비와 함께 하는 2018평창'을 진행했다. 마술쇼 퍼포먼스를 통해 '수호랑'과 '반다비'가 소개되자 참가자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앞으로 진행될 올림픽 붐 활동에 응원을 보였다. 이 위원장(왼쪽 4번째)과 홍보대사 김연애(오른쪽 4번째)가 수호랑, 반다비와 나란히 서서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제공 |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프로축구연맹,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 포스터·영상 제작 배포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8일 불법 스포츠도박의 위법성과 폐해를 담은 영상 및 포스터를 제작해 각 프로스포츠 단체와 구단에 배포했다. 최근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이 급성장하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불법 스포츠도박 참여가 개인은 물론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다.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 포스터는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정보 제공자를 발견하면 주

변의 경호원 또는 구단 관계자에게 제보하고, 아울러 불법 스포츠도박과 관련한 신고는 클린 스포츠 통합 콜센터(1899-1119)로 하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캠페인 영상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 각각의 버전으로 따로 제작됐다. 종목별 특성에 맞춰 프로스포츠 경기장 내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또는 유사 업종을 운영하는 자에게 프로스포츠 경기를 중계하거나 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영상은 각 프로스포츠 경기장 전광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될 예정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프로축구를 비롯한 각 프로스포츠 팬들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체계적인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도훈 기자 dohoney@donga.com